

보 도 설 명 자 료 (19. 8. 12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신고리 5,6호기 시공사와 주요 협력업체들은
올해 연말까지 건설을 중단하지 않기로
합의하였습니다. (조선일보 8.12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)

□ 참고로, 신고리 5,6호기 사업기간 연장은 지난해 12월 결정되어 관보
게재되었던 사안이며, 5호기는 '23.3월, 6호기는 '24.6월 준공 예정임

※ 문의 : 원전산업정책과 서기웅 과장(044-203-5320) / 유의택 사무관(5325)

◇ 신고리 5,6호기 시공사와 주요 협력업체들은 올해 연말까지 건설을
중단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습니다.

◇ 8월 12일 조선일보 < 오후 4시면 일손 놓기 시작하는 신고리 건설
현장 >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.

1. 보도 내용

- '주 52시간 근무제' 시행에 따라, 신고리 5·6호기 시공 하도급
업체들은 근로자 임금 상승 등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, 이에 대한
대책이 없으면 공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임
 - 공사중단 위기가 닥치자 시공사와 협력업체들 간의 협상이 시작
되었으며, 협력업체 3곳은 올해 연말까지 공사 중단 선언을 보류
하는데 합의하였음
- 신고리 5,6호기는 당초 '22.10월 준공 예정이었지만, 공론화 및
주52시간제 도입 여파로 준공이 '24.6월로 연기되었음

2. 동 보도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

- 시공사(삼성물산)는 지난 8.5~8.7일 상기 문제를 제기해 왔던 주요
협력업체 등과 협상을 진행하였으며, 그 결과 올해 연말까지 건설을
중단하지 않고,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합의하였음
 - 산업부와 한수원 역시 하도급 업체들의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
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